

천주교에 대한 한국 무당의 인식 조사*

박 일 영

(가톨릭대학교 종교학과/문화영성대학원)

《요약》

필자는 한국 종교의 역사상 최초로 천주교에 대한 무당들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한국의 무당들은 이웃종교들에 대하여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불교와 천주교에 대한 한국 무당들의 자세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그동안 천주교가 해 온 사회정의 구현운동이나 사회복지 등 많은 역할들에 대하여 한국의 무당들은 비교적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의 샤머니즘 대표자들은 상당한 정도로 국제정치적 식견과 세련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천주교를 비롯한 한국종교들의 '평화실현을 위한 역할'에 대하여도 바람직한 전망과 종교간 화해와 협력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음은 고무적인 사실이다.

21세기 영성의 시대를 맞이하는 한국의 종교 특히 천주교가 가야할 길을 한국의 샤머니즘 대표자들은 문화적 성숙과 종교적 수행이라는 내면의 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한국 천주교회가 한국의 종교문화로 제대로 적응하여 질적으로 비상할 지, 아니면 그 운을 다하고 쇠락의 길로 들어설 지 현재 기로에 서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연구조사 결과이다.

핵심주제어: 한국 무당, 천주교 인식, 설문조사, 이웃종교, 종교간 화해와 협력

I. 서론

필자는 한국 종교의 역사상 최초로 천주교에 대한 샤머니즘 대표자들의 인식

* 본 논문은 가톨릭대학교의 2005년도 교비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본 논문의 초고는 2005년 8월 2일 중국 운남성 곤명시 소재 운남대학 산하 서남변강소수민족연구중심에서 개최된 '중한 전통문화 비교연구 국제학술연토회'에서 발표되었음.

을 실증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무당들을 각 지역별로 샘플링(sampling)하여 2004년 11월 6일부터 2004년 12월 28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²⁾

피조사자의 선별 기준과 설문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되거나 그에 준하는 전국의 대표적인 무당들 중에서 8명³⁾을 필자가 직접 인터뷰하는 기회에, 각 그룹별로 5~6명의 피조사자 선발을 의뢰하였다. 이 연구는 그들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필자가 연구보조원들과 함께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피조사자 대부분을 직접 방문하였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필자의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 연구보조원들을 파견하여 설문지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남자 무당이 13명, 여자 무당이 28명으로 도합 41명이었다.⁴⁾ 현재 한국 무당의 성비는 여성이 80% 정도를 차지하지만, 지도자적 지위에 있는 무당은 남성이 평균보다 훨씬 상회함을 여기서 볼 수 있다. 먼저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입교 시기, 개종 여부 등 개인별 인적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 2) 참조: 박일영 외, 《천주교와 한국 근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 3. 7대 종단 성직자 양성담당자 의식조사보고서》,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5. 본 서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들에서 각 종단의 미래를 이끌어 갈 성직자/교직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인물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한국 천주교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전망을 비교 조사하였다. 이 비교 연구에서는 미래 한국 천주교회의 나아갈 길을 파악하는 동시에 종교간 만남과 협력에 있어서 한국 사회 안에서 기대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그 중점을 두었다.
- 3) 필자가 본 연구를 위하여 피조사자로 선정한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급 및 그에 준하는 무당 그룹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 새남굿의 보유자 김유감과 그 일행, 서해안 풍어제의 보유자 김금화와 그 일행, 강릉 단오굿의 보유자 빈순애와 그 일행, 남해안 별신제의 보유자 정영만과 그 일행, 진도 씻김굿의 보유자 박병천과 그 일행, 제주도 영등굿의 보유자 김윤수와 그 일행, 대전 앓은굿 보유자 후보 한 덕과 그 일행, 최영장군당굿보존회 서경옥과 그 일행 등이다.
- 4) 이 숫자는 한국의 무당 전체 숫자와 비교하여 너무 적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각 주 2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당들의 집단에 소속된 이들을 전국에 걸쳐 선별하였으므로,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차후에 여건이 허락되면 피 설문자의 수를 대폭 늘린 본격적인 연구 조사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표 1> 개인별 인적 사항

성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남자	13	31.7	31.7	31.7
여자	28	68.3	68.3	100.0
합계	41	100.0	100.0	

연령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0-29	1	2.4	2.5	2.5
30-39	7	17.1	17.5	20.0
40-49	14	34.1	35.0	55.0
50-59	9	22.0	22.5	77.5
60-69	4	9.8	10.0	87.5
70세이상	5	12.2	12.5	100.0
합계	40	97.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4		
합계	41	100.0		

교육수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초등학교이하	10	24.4	27.0	27.0
중학교졸업	4	9.8	10.8	37.8
고등학교졸업	14	34.1	37.8	75.7
대학교졸업	8	19.5	21.6	97.3
대학원이상	1	2.4	2.7	100.0
합계	37	90.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9.8		
합계	41	100.0		

현재 소속된 종교의 입교(入敎) 시기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태어나면서부터	3	7.3	7.7	7.7
만10-19세	4	9.8	10.3	17.9
만20-29세	16	39.0	41.0	59.0
만30-39세	14	34.1	35.9	94.9
만40세 이후	2	4.9	5.1	100.0
합계	39	95.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9		
합계	41	100.0		

현재 소속된 종교에 입교하기 전에 다른 종교에 적을 두신 적이 있으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예	19	46.3	50.0	50.0
	아니오	19	46.3	50.0	100.0
	합계	38	92.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7.3		
합계		41	100.0		

이전에 소속된 종교는 무엇이었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개신교	8	19.5	26.7	26.7
	불교	9	22.0	30.0	56.7
	원불교	1	2.4	3.3	60.0
	유교	1	2.4	3.3	63.3
	천주교	3	7.3	10.0	73.3
	기타	8	19.5	26.7	100.0
	합계	30	73.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1	26.8		
합계		41	100.0		

II. 종교 전체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무당들은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⁵⁾ 개신교나 일본계 신종교, 신영성운동 등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호감도를 보인다.⁶⁾ 여기에서 천주교에 대한 호감 정도는 일단 제외하고 물어보았다. 천주교에 대하여는

- 5) 이러한 결과를 빚게 된 데에는 샤머니즘이 불교와 오랜 기간 교류하면서 얻게 된 친연성이라는 소인 이외에도, 최근 불교의 급격한 교세 성장과 비종교인의 개종 희망 종교 목록에서 불교가 1순위를 차지하는 사실과도 상관성이 있는 듯하다. 참조: 한미준-한국갤럽, 《한국교회 미래 리포트》, 서울: 두란노, 2005, 87-89쪽.
- 6) 이러한 적대성은 개신교를 비롯하여 새로운 종교 경향들에 대하여 샤머니즘의 대표자들이 갖는 종교별 이미지가 이질적이라고 느끼는 데 기인하는바 크다고 사료된다. 한국인의 의식 속에서 대표적인 종교들의 종교별 이미지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다음의 도표는 잘 보여준다. 참조: 박문수, 〈한국 종교문화 현실에 비춰본 한국종교와 한국 천주교회의 미래〉, 박일영 외, 위의 책,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5.

나중에 상세하게 다시 질문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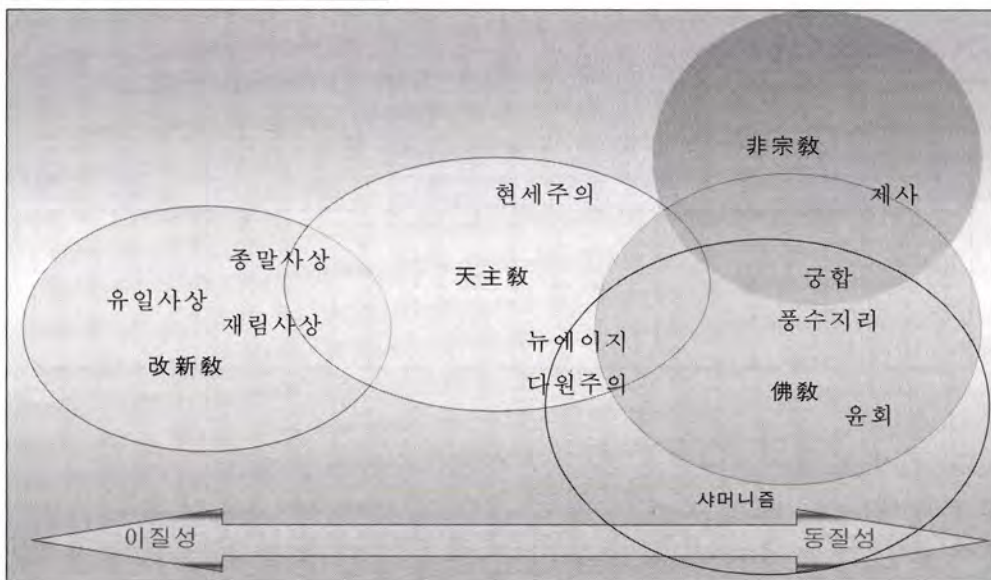
<표 2> 천주교를 제외한 각 종교에 대한 호감도

개신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호감안함	22	53.7	53.7	53.7
	호감안함	11	26.8	26.8	80.5
	보통이다	3	7.3	7.3	87.8
	비교적호감	5	12.2	12.2	100.0
	합계	41	100.0	100.0	

불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호감안함	2	4.9	5.6	5.6
	보통이다	3	7.3	8.3	13.9
	비교적호감	20	48.8	55.6	69.4
	매우호감	11	26.8	30.6	100.0
	합계	36	87.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12.2		
합계		41	100.0		



<한국인 종교의식의 종교별 이미지 포지셔닝>

한국 진출 일본종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호감안감	20	48.8	48.8	48.8
호감안감	14	34.1	34.1	82.9
보통이다	5	12.2	12.2	95.1
비교적호감	2	4.9	4.9	100.0
합계	41	100.0	100.0	

뉴에이지(New Age), 신영성운동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호감안감	23	56.1	57.5	57.5
호감안감	8	19.5	20.0	77.5
보통이다	8	19.5	20.0	97.5
비교적호감	1	2.4	2.5	100.0
합계	40	97.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4		
합계	41	100.0		

한국 사회에 미치는 종교의 영향력 증감 여부를 묻은 질문에는 증가하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모르겠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도 상당히 높아서, 현재 한국의 무당들은 현대 사회 안에서 종교의 영향력 증대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없음을 보여준다.

<표 3> 한국 사회에 미치는 종교의 영향력 증감 여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거의그렇지않다	2	4.9	4.9	4.9
모르겠다	14	34.1	34.1	39.0
비교적그렇다	15	36.6	36.6	75.6
매우그렇다	10	24.4	24.4	100.0
합계	41	100.0	100.0	

한국에서 각 종교가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는 외부적 과제인 '종교간 대화'와 내부적 과제인 '종교문화의 성숙'을 거의 같은 비율로 꼽았다. 한국 샤머니즘의 대표자들은 이 시점에서 종교의 과제와 사명에 대하여 상당히 균형 잡힌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표 4> 한국에서 각 종교가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

각 종교가 우선 역점을 두고 노력해야할 과제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종교간 대화	15	36.6	36.6	36.6
종교간 연대 및 협력활동 (예, 환경 및 통일운동)	6	14.6	14.6	51.2
한국 종교문화의 성숙	12	29.3	29.3	80.5
종교 내부의 개혁(갱신, 쇄신, 정화 등)	6	14.6	14.6	95.1
기타	2	4.9	4.9	100.0
합계	41	100.0	100.0	

한국에서 종교간 갈등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비교적 심한 편’이라고 대답함으로써, 별로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반인들과는 다른 인식을 한국의 무당들은 보여준다.⁷⁾ 이러한 대답이 나오게 된 데에는 공격적인 일부 개신교로부터 받고 있는 한국 무당들의 현실적인 피해 경험이 일정한 정도 작용한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⁸⁾

<표 5> 한국에서 종교간 갈등의 정도

한국에서 종교간 갈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거의 심하지않은편	2	4.9	4.9	4.9
보통이다	13	31.7	31.7	36.6
비교적 심한편	18	43.9	43.9	80.5
매우 심하다	8	19.5	19.5	100.0
합계	41	100.0	100.0	

7) 최근 불교계에서 발간한 자료에도 같은 인식 선상에서 보아야 할 내용이 들어 있다.

불교 조계종 포교원 산하 종교편향대책위원회에서 2000년에 발행한 《종교편향백서》에는 일부 개신교인들이 자행한 불상 훼손 사건과 정부의 종교차별 정책 사례들을 싣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말하는 한국 종교간 공존의 상태란, 현재 한국의 종교문화에도 종교간 갈등이 존재하나, 다만 다른 나라들의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덜 심각하다고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8) 현장조사를 해 보면 무당들로부터 한결 같이 듣는 이야기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무당인 김금화가 출간한 자전적 에세이집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김금화, 《복은 나누고 한은 푸시게》, 서울: 도서출판 푸른숲, 1995, 172-178쪽: “내가 믿으면 종교, 남이 믿으면 미신.”

한국 종교들이 동북아시아에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하여는 절대 다수가 “아시아 지역 내 평화 옹호”라고 대답하였다. 민감하고 세련된 국제 정치의식의 일단을 보여준다.

<표 6> 한국 종교들이 동북아시아에서 해야 할 역할

한국 종교들이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아시아 지역 내 평화 옹호(긴장완화와 평화분위기 조성2	24	58.5	60.0	60.0
	사회복지적 접근을 통한 낙후지역 원조	9	22.0	22.5	82.5
	아시아 지역 내 타 NGO 지원	1	2.4	2.5	85.0
	환경문제 해결 지원	5	12.2	12.5	97.5
	기타	1	2.4	2.5	100.0
	합계	40	97.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4		
합계		41	100.0		

한국 종교들이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아시아 지역 내 평화 옹호(긴장완화와 평화분위기 조성2	24	58.5	60.0	60.0
	사회복지적 접근을 통한 낙후지역 원조	9	22.0	22.5	82.5
	아시아 지역 내 타 NGO 지원	1	2.4	2.5	85.0
	환경문제 해결 지원	5	12.2	12.5	97.5
	기타	1	2.4	2.5	100.0
	합계	40	97.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4		
합계		41	100.0		

한국 종교들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개신교를 1순위로 꼽는 데에는 이의가 없었으며, 2순위에서는 천주교와 불교가 경합하고 있다. 근대화에 가장 기여한 주체로는 박정희 정권을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민족종교를 제시하였다. 전통을 중시하면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민족종교를 상대적으로 선호한 결과로 보인다.

<표 7> 한국 종교들의 사회적 영향력 정도

정치, 사회, 문화 분야에 어느 종교가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1순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개신교	15	36.6	38.5	38.5
	천주교	9	22.0	23.1	61.5
	불교	11	26.8	28.2	89.7
	유교	1	2.4	2.6	92.3
	기타	3	7.3	7.7	100.0
	합계	39	95.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9		
합계		41	100.0		

한국의 근대화에 가장 기여한 주체가 누구라고 보십니까?1순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일제	6	14.6	15.0	15.0
	민족종교	9	22.0	22.5	37.5
	사회주의자	1	2.4	2.5	40.0
	천주교회	2	4.9	5.0	45.0
	개신교회	1	2.4	2.5	47.5
	미군정	3	7.3	7.5	55.0
	박정희정권	16	39.0	40.0	95.0
	시민운동	2	4.9	5.0	100.0
	합계	40	97.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4		
합계		41	100.0		

III. 천주교에 대한 인식

이하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무당들이 천주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을 알아본 결과이다.

먼저, 천주교 신자와 가까이 살거나, 친구로 사귀는 것 또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천주교 신자가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비교적 호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 된다.⁹⁾

9) 2004년에 필자가 책임을 맡은 연구단에서 실시한 일반국민 의식조사에서 '천주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에 비천주교인이 5점 만점에 평점 3.86으로 비교적 높은

<표 8> 천주교 신자와의 교류

천주교 신자와 이웃해 사는 것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비교적부정적	2	4.9	4.9	4.9
그저그렇다	8	19.5	19.5	24.4
비교적긍정적	20	48.8	48.8	73.2
매우긍정적	11	26.8	26.8	100.0
합계	41	100.0	100.0	

천주교가 사회정의에 공헌하는 정도를 등급화 하여 물어 보았다. 천주교의 대 사회 봉사에 대하여도 한국의 무당들은 상당히 후한 평가를 함으로써, 본 연구단의 '2004년 일반국민 의식조사'에서 나타난 일반인들의 인식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¹⁰⁾

<표 9> 천주교의 대 사회 공헌도

천주교회는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 선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안그렇다	1	2.4	2.5	2.5
2.00	1	2.4	2.5	5.0
3.00	2	4.9	5.0	10.0
4.00	3	7.3	7.5	17.5
보통	11	26.8	27.5	45.0
6.00	2	4.9	5.0	50.0
7.00	8	19.5	20.0	70.0
8.00	8	19.5	20.0	90.0
9.00	2	4.9	5.0	95.0
매우그렇다	2	4.9	5.0	100.0
합계	40	97.6	100.0	
결측	1	2.4		
시스템 결측값	1	2.4		
합계	41	100.0		

평가를 한 것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호감도를 보이는 수준이다. 천주교가 갖는 전통문화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여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참조: 박일영 외, 《한국 천주교와 한국 근·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 2. 일반 국민 의견조사보고서》,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4, 75쪽.

- 10) 천주교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이유에 대하여는 이미 2004년에 실시한 일반국민 의식조사보고서에서 분석한 바 있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주로 막연한 인상에 기초한 것이고, 그 인상은 대체로 천주교의 사회정치적 역할과 결부되어 있었다. 참조: 같은 책, 81-83쪽.

천주교의 정신적, 영적 성숙도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이 갈린다. 가부간에 뚜렷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천주교회가 사회정의에 앞장선다거나 사회복지사업에 공헌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는데 비하여, 영적-정신적 측면에서 천주교의 역할이 뚜렷이 각인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게 된다. 21세기 영성의 시대를 대처해야 하는 한국 천주교회에 내면적 성숙을 위한 도전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보인다.

<표 10> 천주교의 성숙도

천주교회의 정신(영)적인 문제 해결능력이 크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안그렇다	1	2.4	2.6	2.6
	2.00	2	4.9	5.1	7.7
	3.00	5	12.2	12.8	20.5
	4.00	4	9.8	10.3	30.8
	보통	16	39.0	41.0	71.8
	6.00	2	4.9	5.1	76.9
	7.00	4	9.8	10.3	87.2
	8.00	3	7.3	7.7	94.9
	9.00	1	2.4	2.6	97.4
	매우그렇다	1	2.4	2.6	100.0
	합계	39	95.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9		
합계		41	100.0		

천주교가 얼마나 외래종교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물은데 대하여도 답변이 폭넓게 분포한다. 한국의 무당들에 국한해 볼 때, 천주교의 한국화가 아직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점진적으로라도 진척되고 있다는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천주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한국의 무당들은 성당 건축을 첫손가락에 꼽았다. 지난 100년 동안의 한국 천주교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외국인 선교사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밖에 명동성당, 가톨릭 농민회, 근대화, 사회복지, 정의구현사제단 등에 대하여 강한 인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주교에 대한 인식이 내면적 수행이나 종교 본연의 성숙 보다는, 주로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부분에 머무르고 있음을 여기서도 확인하게 된다.

<표 11> 천주교에 대한 인상

천주교(가톨릭교회)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1순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성당건물	20	48.8	48.8	48.8
	천주교예복	1	2.4	2.4	51.2
	성모마리아	13	31.7	31.7	82.9
	교황	2	4.9	4.9	87.8
	종교의식	2	4.9	4.9	92.7
	기타	3	7.3	7.3	100.0
	합계	41	100.0	100.0	

지난 100년 동안(20세기)의 한국 천주교회를 떠올릴 때 다음에서 어느 것이 가장 먼저 연상되십니까(1순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근대화	3	7.3	7.9	7.9
	외국선교사	16	39.0	42.1	50.0
	가톨릭농민회	5	12.2	13.2	63.2
	정의사회구현사제단	1	2.4	2.6	65.8
	사회복지	2	4.9	5.3	71.1
	명동성당	7	17.1	18.4	89.5
	기타	4	9.8	10.5	100.0
	합계	38	92.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7.3		
합계		41	100.0		

천주교에서 남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데 대하여는 유일신관이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유일성 주장 등을 꼽았다. 외래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성당 건축 양식과 신자들의 세례명을 들었다. 유일신 사상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절대성 요청은 다신론을 바탕으로 하는 샤머니즘의 예견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서양식으로 구성된 성당 건축과 세례명에 대하여는 여전히 낯설게 느끼는 정서를 감지할 수 있다.

<표 12> 천주교에서 낯선 부분

천주교에서 가장 낯득이 가지 않는 가르침이나 문화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1순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유일신관	16	39.0	45.7	45.7
	그리스도구원의유일성	4	9.8	11.4	57.1
	마리아교리	1	2.4	2.9	60.0
	하느님이자인간인예수	5	12.2	14.3	74.3
	교황무오설	2	4.9	5.7	80.0
	생명관련가르침	2	4.9	5.7	85.7
	사제독신	4	9.8	11.4	97.1
	기타	1	2.4	2.9	100.0
	합계	35	85.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6	14.6		
합계		41	100.0		

여러 요소들 가운데 가장 서구적으로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1순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성당건축양식	26	63.4	66.7	66.7
	신자세례명	7	17.1	17.9	84.6
	미사와같은전례의식	2	4.9	5.1	89.7
	성직자와수도자복장	2	4.9	5.1	94.9
	천주교음악	1	2.4	2.6	97.4
	기타	1	2.4	2.6	100.0
	합계	39	95.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9		
합계		41	100.0		

현재 한국 천주교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사회복지를 필두로 종교적 수행, 인권·정의·평화운동을 나란히 들으로써, 한국 천주교회가 역점을 두고 꾸준히 전개해 온 사회복지 분야의 간접 선교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역시 이제 국력의 신장과 함께 사회복지 등 국민의 외형적인 행복 추구는 정부나 시민단체에 그 역할을 넘겨주고, 종교는 종교 본연의 임무로서 내면적 수행이나, 영성적 성숙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읽어 내야 할 것이다.¹¹⁾

11) 참조: 정재식, 《전통의 연속과 변화. 도전 받는 한국 종교와 사회》, 서울: 아카넷, 2004.

<표 13> 천주교회의 역점 사업

현재 한국천주교회가 다음 중 어느 일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고 보십니까?(1순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교세확장	6	14.6	16.2	16.2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	12	29.3	32.4	48.6
인권·정의·평화운동	7	17.1	18.9	67.6
종교적인수행	8	19.5	21.6	89.2
신자집단의결속적강화	2	4.9	5.4	94.6
기타	2	4.9	5.4	100.0
합계	37	90.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9.8		
합계	41	100.0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천주교회가 한국의 근대화에서 어느 분야에 기여하였는가를 물어본 데 대하여는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분야라는 대답이 월등하게 많았다.

<표 14> 천주교회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한 분야

한국의 근대화에(기여하였다면) 가장 기여한 분야가 어디라고 보십니까?(1순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사회복지	23	56.1	62.2	62.2
고등교육	1	2.4	2.7	64.9
민중계몽	3	7.3	8.1	73.0
문화교양	2	4.9	5.4	78.4
의식개혁	3	7.3	8.1	86.5
예술(건축,음악,회화)	1	2.4	2.7	89.2
기타	4	9.8	10.8	100.0
합계	37	90.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9.8		
합계	41	100.0		

천주교가 한국 땅에 전래된 이후 어느 영역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켰다고 여기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종교와 철학이 근소한 차이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건축 및 예술, 사회사상 등이 뒤를 이었다.

<표 15> 천주교 전래 이후 발생한 한국 사회의 변화
천주교의 전래이후 한국 사회의 어느 영역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켰다고 보십니까?(1순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건축및 예술	9	22.0	24.3	24.3
사회사상	7	17.1	18.9	43.2
종교와 철학	11	26.8	29.7	73.0
전통윤리와 가치관	5	12.2	13.5	86.5
빈곤타파	1	2.4	2.7	89.2
주체의식	1	2.4	2.7	91.9
기타	3	7.3	8.1	100.0
합계	37	90.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9.8		
합계	41	100.0		

천주교가 한국 땅에 전래된 이후 범한 가장 큰 과오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조상 제사에 대한 불인정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였다. 조상에 대한 숭배를 중요한 신앙 요소로 생각하는 샤머니즘의 신앙관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때, 천주교 전래 당시 조상 제사 금지 조치는 지배 이념(ideology)이었던 유교(성리학)뿐만 아니라, 민중종교인 샤머니즘에게도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된다.¹²⁾

<표 16> 천주교가 한국 사회에서 범한 가장 큰 과오
한국사회와의 관계에서 범한 가장 큰 과오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조상제사불인정	21	51.2	53.8	53.8
황사영백서사건	3	7.3	7.7	61.5
일제시대 전시동원 체계협력	4	9.8	10.3	71.8
신사참배허용	1	2.4	2.6	74.4
3.1운동참여반대	4	9.8	10.3	84.6
미군정에대한협력	2	4.9	5.1	89.7
기타	4	9.8	10.3	100.0
합계	39	95.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9		
합계	41	100.0		

12) 참조: 최기복, <조상제사 문제와 한국 천주교회>, 《민족사와 교회사. 최석우신부 수품 50주년 기념논총 1》,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63-106쪽; 주재용, <선유의 천주 사상과 제사 문제>, 서울: 가톨릭출판사, 개정판: 1995(1957); 박일영, <한국 무교와 그리스도교>, 왜관: 분도출판사, 2003.

한국 천주교회의 운영 면에서 투명성이라는 기준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물어 본 데 대하여는 재정 운영의 불투명성과 신자들이 지닌 사회윤리의식의 취약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종교 단체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재정 운영상의 불투명성과, 종교 단체들이 운영하는 대규모 시설들에서 최근에 불거진 일련의 사태가 이러한 판단에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천주교를 위시한 신앙인과 비신자 사이에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 사회윤리의식이 한국의 무당들에게도 중대한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7> 투명성이라는 기준에서 취약한 측면

투명성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영역이 가장 취약하다고 보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성직자권위주의	6	14.6	15.8	15.8
	재정운영	9	22.0	23.7	39.5
	대규모사회복지시설운영	3	7.3	7.9	47.4
	대규모병원,대학교운영	3	7.3	7.9	55.3
	신자들의사회윤리의식	9	22.0	23.7	78.9
	기타	6	14.6	15.8	94.7
	없다	2	4.9	5.3	100.0
	합계	38	92.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7.3		
합계		41	100.0		

IV. 결론

이상의 설문조사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문화에 천주교가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뚜렷한 의견이 없이 건축, 음악, 문학, 복식 등 여러 방면에서 골고루 답변이 제시되었다. 긍정적으로 분석하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대치를 나타낸다고 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본다면 어느 하나 특별히 기대하는 것이 없다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다. 한국 천주교회가 한국의 종교문화로 제대로 적응하여 질적으로 비상할 지, 아니면 그 운을 다하고 쇠락의 길로 들어설 지 현재 기로에 서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표 18> 한국 문화에 천주교가 기여할 수 있는 분야

한국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건축	6	14.6	16.2	16.2
	음악	6	14.6	16.2	32.4
	문학	6	14.6	16.2	48.6
	미술	1	2.4	2.7	51.4
	복식	6	14.6	16.2	67.6
	기타	12	29.3	32.4	100.0
	합계	37	90.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9.8		
합계		41	100.0		

이상과 같이, 한국 무당들의 천주교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다. 이상의 설문조사가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한국종교 역사상 최초로 샤머니즘의 대표자들이 천주교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인식을 계량적, 실증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둘째, 설문조사 결과 한국의 무당들은 이웃종교들에 대하여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불교와 천주교에 대한 한국 무당들의 자세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셋째, 그동안 천주교가 해 온 사회정의 구현운동이나 사회복지 등 많은 역할들에 대하여 한국의 샤머니즘 대표자들은 비교적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한국의 샤머니즘 대표자들은 상당한 정도로 국제정치적 식견과 세련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천주교를 비롯한 한국종교들의 '평화실현을 위한 역할'에 대하여도 바람직한 전망과 종교간 화해와 협력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음은 고무적인 사실이다.

다섯째, 21세기 영성의 시대를 맞이하는 한국의 종교 특히 천주교가 가야할 길을 한국의 샤머니즘 대표자들은 문화적 성숙과 종교적 수행이라는 내면의 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제시된 설문조사 결과 이외에, 같은 시기에 필자가 실시한 한국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급 무당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내용들도 곧 정리하여 소개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될 때, 한국 샤머니즘 대표자들의 천주교에 대한 인식이 명실상부하게 입체적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인철 · 박문수 · 박영대, 《가톨릭신자의 종교의식과 신앙생활》, 대구: 가톨릭신문사, 2002.
- 그레이슨, 제임스 헌틀리, 강돈구 역, 《한국종교사》, 서울: 민족사, 1989.
- 근 · 현대 한국 가톨릭연구단, 《한국 근 · 현대 100년 속의 가톨릭교회》, 상권,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3.
- 근 · 현대 한국 가톨릭연구단, 《한국 근 · 현대 100년 속의 가톨릭교회》, 중권,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5.
- 길희성, 《포스트모던 사회와 열린 종교》, 서울: 민음사, 1994.
- 김금화, 《복은 나누고 한은 푸시게》, 서울: 도서출판 푸른숲, 1995.
- 김성례 외, 《한국 종교문화 연구 100년》, 서울: 청년사, 1999.
- 김승혜 · 김성례, 《그리스도교와 무교》, 서울: 바오로딸, 1998.
- 노길명 · 오경환, 《가톨릭 신자의 종교의식과 신앙생활》, 대구: 가톨릭신문사, 1988.
- 류동식, 《한국 무교의 역사와 구조》,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75.
- 류동식, 《한국종교와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5.
- 문화재관리국 편, 《한국민속 종합조사보고서》, 전 14권, 서울: 문화재관리국, 1969-1983.
- 박일영, 《한국 무교와 그리스도교》, 아시아신학총서 10, 왜관: 분도출판사, 2003.
- 박일영, 《한국 무교의 이해》, 종교학총서 9, 왜관: 분도출판사, 1999.
- 박일영 외, 《천주교와 한국 근 · 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 1. 전문가 의견조사 보고서》,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4.
- 박일영 외, 《천주교와 한국 근 · 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 2. 일반 국민 의견조사 보고서》,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4.
- 박일영 외, 《천주교와 한국 근 · 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 3. 7대 종단 성직자 양성담당자 의식조사보고서》,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5.
- 우리사상연구소, 《한국 가톨릭 어디로 갈 것인가》, 서울: 서광사, 1997.
- 윤승용, 《현대 한국종교문화의 이해》, 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7.
- 윤이흠 외, 《한국종교연감》, 서울: 한국종교사회연구소, 1994.
- 윤이흠 외, 《한국인의 종교관 : 한국정신의 맥락과 내용》,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정재식, 《전통의 연속과 변화. 도전 받는 한국 종교와 사회》, 서울: 아카넷, 2004.
- 정진홍, 《종교문화의 인식과 해석》,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개정판: 2002(초판: 1969).
- 조홍윤, 《한국종교문화론》, 서울: 동문선, 2002.
- 종교편향대책위원회, 《종교편향백서》, 서울: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2000.
- 주재용, 《선유의 천주 사상과 제사 문제》, 서울: 가톨릭출판사, 개정판: 1995 (1957).
- 차옥승, 《한국인의 종교경험. 무교》, 서울: 서광사, 1997.
- 최래옥, 《한국문화와 기독교》,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1994.
- 편무영 외, 《한국 종교민속 시론》, 서울: 민속원, 2004.
- 프리들리, 리카르트, 박일영 역, 《현대의 선교. 선교인가 반(反)선교인가》, 신학선서 10,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89.
- 한국 종교연구회, 《한국 종교문화사 강의》, 서울: 청년사, 1998.
- 《한국 천주교 연감》,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 《한국 천주교 총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
-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제4차 비교조사》, 서울: 한국갤럽, 2004.
- 한국사목연구소 편, 《한국천주교회사의 성찰과 전망 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0.
- 한국사목연구소 편, 《한국천주교회사의 성찰과 전망 2》,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1.
- 한국종교연구회, 《종교 다시 읽기》, 서울: 청년사, 1999.
- 한국종교연구회, 《한국종교문화사 강의》, 서울: 청년사, 1998.
- 한국종교학회 편, 《해방 후 50년 한국종교연구사》, 서울: 도서출판 창, 1997.
- 한미준-한국 갤럽,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활동 및 신앙의식》, 서울: 두란노, 1999.
- 한신대학교 학술원 신학연구소, 《한국 개신교와 한국 근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 Clark, Charles-Allen, *Religions of old Korea*, New York, 1929(reprint: 1961).
- Park, Il-young, *Minjung, Shamanismus und Inkulturation. Schamanistische Religiosität und Christliche Orthopraxis in Korea*. Dissertation Universität Fribourg, 1988.

- Park, Il-young et al., *Religion in Korea*, Seoul: Ministry of Culture & Tourism, 2003.
- Smith, Wilfred Cantwell, *Towards A World Theology. Faith and the Comparative History of Relig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1.
- Sörensen, Henrik H., *Religions in Traditional Korea*, Copenhagen: The Seminar for Buddhist Studies, 1995.
- Taylor, Mark C., *Critical Terms for Religious Studies*, Chicago UP, 1998.
- Underwood, Horace-Grant, *The Religion of East Asia*, New York, 1910.

2. 학술 논문

- 김종서, 〈종교 집단간의 상호이해〉, 정신문화연구원 편, 《철학·종교사상의 제문제 V》, 정신문화연구원출판부, 1989.
- 박일영, 〈종교 간의 갈등과 대화. 무속과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서울: 서강대학교, 《종교·신학연구》 제2권, 1989.
- 박일영, 〈그리스도교에서 본 무속신앙〉, 서울: 서강대학교, 《종교·신학연구》 제7권, 1994.
- 박일영, 〈한국인의 민간신앙과 종교적 심성〉, 《한국 전통사상과 천주교》, 서울: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1995.
- 박일영, 〈무교적 관점에서 본 그리스도교〉, 서울: 가톨릭대학교, 《신학과 사상》 제14권, 1995.
- 박일영, 〈가톨릭과 무교의 상호선교〉, 광주: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전망》 제115권, 1996.
- 박일영, 〈두렵고도 인자한 님을 대하여. 무교와 그리스도교에서 본 하느님 체험이야기〉, 수원: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국그리스도사상》 제5권, 1997.
- 박일영, 〈다종교 문화의 전통과 현실 속에서의 복음화〉, 수원: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국그리스도사상》 제8권, 2001.
- 박일영, 〈무교와 그리스도신앙〉, 한국문화신학회 편, 《한국종교문화와 그리스도》, 서울: 한들, 1996.
- 박일영, 〈무교적 심성에 비추어 본 가톨릭교회의 한국화 전망〉, 우리사상연구소 편, 《한국 가톨릭 어디로 갈 것인가?》, 서울: 서광사, 1997.
- 박일영, 〈한국천주교회의 토착화운동〉, 《한국천주교회사의 성찰. 최석우 신부 수품 50주년 기념논총 2》,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 박찬식, 〈한말 천주교와 토착문화의 갈등. 1901년 제주교안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29권, 2001.
- 이기영, 〈내가 본 한국 천주교회〉, 서울: 가톨릭대학교, 《가톨릭 신학과 사상》 제14권, 1995.
- 이병호, 〈프랑스 선교사들의 영성과 한국교회〉,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교회사연구》 제5권, 1986.
- 정진홍, 〈종교문화의 만남: 한국의 종교문화와 그리스도교 문화와의 만남을 서술하기 위한 시론〉,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신학사상》 제54권, 1986/ 봄.
- 최기복, 〈조상제사 문제와 한국천주교회〉, 《민족사와 교회사. 최석우신부 수품 50주년 기년논총 1》,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 Friedli, Richard, "Interkulturelle Theologie", *Handwörterbuch missionswissenschaftlicher Grundbegriffe*, Düsseldorf, 1989.
- Needham, Rodney, "Percussion and Transition", *Reader in Comparative Religion. An Anthropological Approach*, New York: Harper & Row, 1979.
- O, Sek-keun, *Der Volksglaube und das Christentum in Korea*. Dissertation, Berlin: Freie Universität Berlin, 1979.
- Park, Il-young, "Dynamic Religiosity. Insights from Korean Folk-Religion", *Pilgrims in Dialogue*, Bangalore/India: Journal of Dharma, 2000.
- Park, Il-young, "The Role of Korean Shamanism for the Actualization of Peace. From the Viewpoint of Inter-religious Encounter and Cooperation", *The 7th Conference of International Society for Shamanistic Research(ISSR)*, China: Changchun, Aug. 2004.

원고접수: 2005년 12월 1일 1차심사: 12월 15일 게재승인일: 12월 20일

연구자 소개: 박일영

- ① 전공: 비교종교학 / 소속: 가톨릭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겸 문화영성대학원장
 - ② 관심영역: (사회적 영향력과 관련한) 한국과 중국의 민간신앙 비교연구
 - ③ 주요논저: 《종교 간의 갈등과 대화. 무속과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무교적 심성에 비추어 본 가톨릭교회의 한국화 전망》, 《해방 후 토착종교와 가톨릭의 만남》(공저)
 - ④ E-mail: onezero@catholic.ac.kr
-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Catholicism by Korean Shamans

Park, Il-young

(Dept. of Religious Studie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I carried a survey by questionnaire into effec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catholicism by Korean shamans. This kind of survey is the first try in the Korean religious history. As the result of the survey we could find out that Korean shamans have tolerant and broad-minded perception about neighbour religions. Especially the attitude of shamans toward Buddhism and Catholicism was obviously positive.

Korean shamans have showed a relatively clear perception of the social justice movement and/or social welfare work done by the Korean Catholic church. In addition I could confirm that representatives of Korean shamanism have exalted ideas about international affairs and refined vision on the inter-religious encounter. It is very stimulating that Korean representatives of shamanistic world show an ideal vision and cooperative attitude to Korean religions including Catholicism for the peace realization and inter-religious reconciliation in North-East Asia.

People say that the 21st century is the era of spirituality. In such an era, Korean representatives of shamanistic world present an inner way of cultural mature and religious improve as the way that Korean religion, especially Catholic Church should follow. Therefore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hows clearly that the Korean Catholic Church is now facing a crossroad whether it can take flight qualitatively as a good integrated part of Korean religious tradition and culture or fall down after meeting its doom.

Key Words: Korean shamans, perception of catholicism, survey, neighbour religions, inter-religious reconciliation